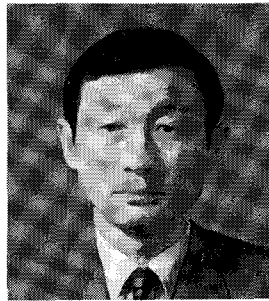


원유 생산비 계산에 대한 제안



박 갑 순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70 우리농장 대표)

나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장생활 약15년 후에 낙농에 직접 투신하였고 평소 엄격하고 검약하는 부친슬하에서 성장하여 나름대로 프로의식과 원가 개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감히 자처할 수 있는 터이다.

처음에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축산을 시작한 데다 본의아니게 고정투자가 많이 되어 자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하던 중 염려해 주는 주변 전문가들이 낙농으로 전환하면 자금 회전도 빠르고 수익도 괜찮아 덜 고생하리라는 권유를 고민끝에 받아들여 낙농으로 전환한 지 약 6년, 우유를 생산한지는 약 4년 정도인데 아직도 착유시설한 용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란 계산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유자금은 커녕 아직도 계속적인 자금부족 상태이다. 나는 처음엔 남들은 괜찮다는데 나만 어려운 것이 나의 짧은 경력,

즉 무지와 방만한 경영 탓인줄 알고 개선해 보 고저 꽤나 귀동냥, 눈동냥을 하느라 고생도 많 이 하면서 점검해 본 나름대로의 검토 결과 역시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다만 출발 당시의 착유우가 이제 4산차라는 점과 무경험으로 인한 실수는 감안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낙농에 관하여 좀 더 발전적인 곳이 있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어디든지 쫓아 다니던 중 지난해 여름 충남에 있는 모 낙농 조합장택 농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어 그 조합장과 여러가지 의견 교환을 하던 중 그분의 원유의 원가 분석 결과로는 당시 현재 우유 1kg당 약 4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과 원유의 원가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해 본 결과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분의 경력을 물어보니 서울에서 꽤 큰 기업의 경리분야 간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서 나도 나의 견해에 대하여 자위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원가계산에서 고려치 않고 간과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후 농림수산부의 캐나다 낙농연수단의 일원으로 캐나다 낙농분야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야 낙농(원유)의 원가 계산에 관한 기술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캐나다의 수도가 위치하고, 캐나다 낙농의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우유유통평의회」(OMMB: 순수 낙농인 단체)에서 산출한 1990~1991년 기준(이곳에서는 2년간 매달 조사한 원가의 평균치를 원가로 산정함) 원가 구성 내역을 간략히 소개 한다. 이는 우리 낙농가들과 유관기관의 원가산출 기준의 참고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1. 현금 비용 : 39.81%
2. 노동비 : 36.27%(온타리오주 전체 산업의 평균 노동비를 기준)
3. 순자산에 대한 이익 환수금 : 11.74%(온타리오주 전체 산업의 평균치로 산정)
4. 지급이자 : 4.18%
5. 감가상각비 : 6.59%(기계 : 4.71%, 건물 : 1.88%)
6. 경영비 : 4.38%
7. 가축 판매 대금외 : 2.97%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캐나다 낙농의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온타리오주(洲) 우유유통평의회(OMMB)」에서 산출하는 원유생산비에 관한 것으로 우리 낙농가들과 유관기관의 원가산출 기준에 참고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OMMB는 주정부 및 캐나다 낙농위원회(CDC)와 공동으로 「온타리오 낙농가 경영

실태조사 프로젝트(ODFAP)」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는 온타리오 주내의 무작위 추출된 150개 표본농가에 대하여 매달 실시하고 생산비 대표치는 100리터당 2년간의 평균치로 얻어진다. 표본농가는 매년 30개 농가씩 교체된다. 먼저 생산비가 산출되면 생산비가 높은 쪽 부터 순위를 놓고 생산비가 낮은 쪽으로부터 75%에 해당하는 농가를 선발하여 이들 농가의 평균생산비를 재산출하여 그 자료를 우유가격 결정의 자료로 활용한다.

이 ODFAP의 생산비 산출 방식에 있어 비용은 다음의 6가지로 대별된다.

1. 현금비용
2. 직접노동비
3. 경영주의 이윤(순 자산에 대한 이익 환수금)
4. 부채이자
5. 감가상각비
6. 경영자 보수

1990-1991년도 2년간 ODFAP의 자료를 상기 기준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비용 : 현금비용으로 우유 100리터를 생산하는데 투입한 사료비, 종부료, 기계 및 설비 수리비, 개스 및 연료비, 일상적인 작업비, 종자대, 비료대, 건물수리비, 농약대, 재산세, 보험료, 전기전화료, 방역치료비, 수송비 및 수수료 등이다. 고용노동 및 이차지불과 관련된 현금비용은 따로 계산한다.

2) 직접노동비 : 우유 100리터 생산에 소요된 직접투여 평균노동시간을 매 기준년도 온타리오주 전산업평균 임금 단가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경영주의 이윤(순자산에 대한 이익 환수금) : 주택과 일반소유물(할당 권리 포함)을 제외한 토지, 낙농관계 건축물 및 기계등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여 평가하고 가축과 농작물등은 시가로 평가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평가한다.

4) 부채이자 : 기준년도 기간중 낙농가가 실제 지불한 부채에 대한 이자로 산정된다.

5) 감가상각비 : 기계설비, 건물 및 짓소 감가상각등이다. 짓소 감가상각비는 후보대체우 생산비용이라는 개념으로서 도대우 판매수입과 우군에 편입되는 후보대체우의 생산원가의 차액이 반영된다.

6) 경영자보수 : 직접노동비에서는 경영주가 경영에 투입하는 정신적 소요시간과 비일상적인 업무시간을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경영자 보수라는 항목으로 계상한다.

이상의 구성요소로 1990-1991년도 원가비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다.

- 1) 현금비용 : 39.27%
- 2) 직접노동비 : 36.27%
- 3) 경영주의 이윤(순자산에 대한 이익 환수금) : 11.77%
- 4) 부채이자 : 4.18%
- 5) 감가상각비 : 6.59%

농후사료비는 단순한 유사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육성우의 농후사료비가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나 착유우와 거의 동일한 수의 육성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낙농을 할 수 없다는 세계 공통점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착유우 농후 사료대의 25~30%의 육성우 사료대가 당연히 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

6) 경영자보수 : 4.38%

얼마전 시유 가공업체들이 전례에 없이 낙농가들의 원유가격 인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유의 공장도 가격을 전격적으로 11% 인상함으로써 우리 낙농가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고 원유가의 원가 문제가 전체 낙농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나 도 백방으로 자료를 구하던 중 농림수산부에서 1991. 7. 1부로 원유가격 5.2% 인상할 당시의 원유의 원가계산 내역 자료를 취득하게 되어 흥미를 가지고 나의 농장에 대하여 역산 검토하던 중 여러가지 오류가 있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몇가지 예를 들어 나 나름대로의 의견을 간략히 피력해 보고저 한다.

첫째, 농후 사료비는 단순한 유사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육성우의 농후사료비가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나 착유우와 거의 동일한 수의 육성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낙농을 할 수 없다는 세계 공통점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착유우 농후 사료대의 25~30%의 육성우 농후 사료대가 당연히 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조사료대가 너무 허무니 없이 계상되었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볏짚위주로 조사료를 조달하는 우리 실정만을 감안해도 농후 사료대의 50% 이상이 된다고 판단한다.(농림수산부 원가안 : 조사료비/농후 사료비 : 23.7%) 그러나 볏짚 위주로만 사육되면 우리나라 낙농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더구나 낙농을 선도해 가는 여러 발전적인 농가들은 조사료 비용이 농후 사료비 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연히 그래야만 우리나라 낙농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한편으로 축협 중앙회의 시범 농장에서 생산되는 엔시레지(옥수수)의 생산원가와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것과의 원가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본다. 만약 우리가 사료포에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고 담배나 인삼을 재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차이라든가 또는 아예 옥수수를 재배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해 주었을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소위 기회 비용이 원가에 산입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여하튼 나는 조사료 비용은 농후사료비와 같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고용 노임 비용이 너무나 적게 계상되어 있다.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농촌의 고용 임금이 도시의 그것보다 높은 비율로 크게 상승되어 있는 현실이 감안되지 않으면 않된다고 판단한다.

넷째, 차입금 이자도 원유 1kg당 3.03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납득이 안된다. 1일 600kg의 우유를 생산하는 나의 경우 월 54,540원 연간 654,480원이 된다는 계산인데 정말 이 정도로만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건물 상각비가 전체원가의 0.9% 대농구 상각비가 전체 원가의 2.5%인 것은 우리보다 훨씬 질 좋고 저렴한 값의 농기구를 사용하는 앞에서의 캐나다 예와 비교할 때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의 낙농현실이 시설 및 장치산업에 가깝게 발전하여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감가상각비는 더욱 증가되어 있을 것이란 추정을 쉽게 가능해진다.

여섯째, 가축 상각비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가축의 잔존 가액과 우리나라 유우의 평균 산차인 3산을 감안할 때 농수산부의 기준치와는 크게 다르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부산물 수입도 차이가 너무 나고 있다. 나는 약 20% 이상 오차가 있다고 판단한다. 급락하고 있는 숫송아지 값과 노페우 값은 1992년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향후 훨씬 더 하락하

리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여덟째, 자본에 대한 이자를 원가에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나라 전 산업의 순자산 평균 이익율로 대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산을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재평가하여 회계에 반영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농민들은 직접 투자되는 비용과 단순 계산방식에 의한 원가에 의해서만 생산물의 원가가 계산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 또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불합리한 농수산부의 원가산정 방법이 축협중앙회의 산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낙농가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 종래의 정부 통계 산출 방식이 그랬듯이 종횡으로의 확인 없이 서면, 전화, 구두 방식 등 편리한 대로 적당히 하고 또 자료를 제시하는 농민의 자세도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적당히 해 왔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 완전한 국제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긴급히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야만 낙농을 하나의 국가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국가 주무부서로서 원가 산출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예를들면 토지가액의 산정 방식, 가축 상각비의 산출 방식, 국내 전체 산업의 노동비 및 순자산 이익율의 적용 기준제시등)을 제시하여 유관단체 및 농민을 지도 계몽하고 이에 의한 자료 산출을 축협중앙회 뿐 아니라 타 관련 단체에도 복수로 의뢰하여 확인 검정하고, 이를 의뢰 받은 유관 기관들은 직접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현장 입회 산출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철저한 기록유지와 원가 개념을 가지고 조사원의 조사 결과를 검토 확인 함으로써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도록 노력하여야만 오늘날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임은 물론 우리 낙농은 진짜 건강한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